

‘아름다움’의 어원을 ‘알’ 즉 이미 ‘알고 있는 것’, 그 알고 있는 것 ‘다움’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었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나온다는 해석일 것이다. 이런 어원해석에 무리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니 올바른 해석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전혀 설득력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것, 낯선 것을 보면 일단 불안감과 함께 거부감을 보인다. 인류가 처음 낯선 다른 인종을 보았을 때 그들을 괴물로 보지 않았던가. 해방 후 한국인이 처음 보게 된 ‘양코베기’가 그렇고 ‘니그로’가 그랬다. 괴물 같았던 그 ‘니그로’도 이젠 세계적으로 ‘Black is Beautiful’로 통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에 긍정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 바깥쪽에 존재하는 것을 처음부터 아름답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눈에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문명, 문화, 관습, 과학이론, 이데올로기, 의식세계의 변화나 진화 역시 처음은 모두 낯선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리고 그 모든 낯선 것들은 우리의 경험 속으로 녹아들면서 차츰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한 달 밤이 밤마다 서울 중심가를 가득 메웠던 촛불시위도 우리에게 낯선 것 가운데 하나였다.



**불자 세상보기**

김정자  
칼럼니스트

**국민의 성숙도와 폭력시위**

사회적 현상에 처음 촛불이 상징성을 드러낸 것은 물론 서구사이다. 그들은 여러 만행의 현장에 촛불을 켜 말없이 만행을 규탄하고 희생된 영혼들을 위로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 촛불이 한국에 들어와 보다 강력한 메시지 전달 도구로 진화했다. 세계인의 눈들도 이 경이로운 현상을 보며 놀라워하고 있다. 한국인들도 이를 두고 의견과 견해들이 분분했다. 어떤 이는 혼란하고 불안한 시선으로 또 어떤 이들은 희망적인 시선으로...

호가 한국사회 중심에 있으면서 혼란 또한 계속되고 있음을 보지 않았는가.

그 혼란의 한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그 수준을 높여야 할 대중(大衆)이라는 존재가 있다. 대부분 이성 아닌 감정이 중심에 놓이게 되는 대중도 성숙의 단계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성숙 이전의 대중은 선동이나 부추김에 휩쓸리기 쉽고 이런저런 슬로건에 도취되어 정신적 준비 상태가 되기 쉽다. 인류 역사 이래 교묘한 선전 선동이 없었던 시기는 없었으며 그 때마다 대중의 역할은 때로는 현명하게 때로는 어리석은 우중(愚衆)의 역할을 해

왔다. 대중이 시대에 등장한 슬로건을 가려 평가할 줄 알게 된 현명했던 시절의 역사는 발전했고, 좁비 같은 우중이 활개 쳤을 때 역사는 퇴보했다.

대중이 성숙하려면 주어진 슬로건을 스스로 검증할 줄 알아야 한다.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다.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그리고 놀랍게도 감성적인 청소년들이 대거 참가했던 촛불시위를 대중 메시지 전달의 새로운 표현으로, 그리고 이것이 폭력화 되지 않는 이상, 희망적인 시선으로 보아 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촛불시위에 뒤따른 각 분야 이익 집단들이 참가하는 폭력시위다.

촛불문화제가 시위문화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것이라면 폭력시위는 지난 세기의 낡은 선동으로 한 때 재미 났던 일부집단의 구태에 다름 아니다.

인도 땅, 2500여 년 전, 코살라 국이 부처님의 나라 카필라로 쳐 들어오고 있을 때 부처님은 저들이 오는 길에 고요히 앉아 그들을 기다렸다. 단지 고요히 앉아있던 부처님 모습으로 하여 전생은 두 번이나 미루어졌다.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 받고 있는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주의가 인도에서 싹을 수 있었던 배경이었을 것이다.

지금 한국 국민의 성숙도로 보아도 폭력시위는 이미 청산되어 있어야 마땅한 행위다.

**침착해야 산다**

“제 정신으로는 할 수 없었죠.” 김씨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오싹하다. 김씨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 사장이다. 어느 날 현장사무실 밖 마당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사무실 안에서 핑! 하는 소리가 났다. 깜짝 놀라 보니 커다란 유리창으로 보이는 사무실 안에서 불이 불고 있지 않은가. 안에는 직원들이 몇 명 있었다.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문 쪽으로 움직였다. 그 순간이었다. 커다란 유리창이 외장창 깨지며 불길과 함께 마당 밖으로 튀어나왔다. 조금만 늦었으면 김씨는 그 불붙은 유리창을 뒤집어 쓸 뻔하였다. 그러나 문 쪽으로 갔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다. 불과 몇 초 사이, 직원들을 구하려고 움직인 것이 위험으로부터 그를 구한 셈이었다.

**“모두 침착해! 침착해야 산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㉑ 불 속에서 살아남기**

을 하고 열른 문을 다시 닫아버렸다. 그 문 주위는 온통 불길이어서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었다. 더 이상 있으면 김씨도 위험했다. 살려낸 밖으로 나가야 했다.

김씨에게는 그 십여 분의 아수라장이 몇 시간은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스님에게 “세 가지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라고 말하였다. 우선 평소에도 마음공부를 해서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할 수 있었던 점이다. 지금도 “침착해!”하는 자신의 외침에 직원들이 일시에 차분해졌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불이 났다고 김씨도 무조건 당황했다면 어찌 되었을지 모른다. 두 번째는 사무실 우리가 깨지는 것을 피한 점이었다.

**혼자 살 수는 없다**

“그래도 그 순간 저 사람은 우리 회사 직원이다. 그를 버릴 수는 없다. 같이 타 죽더라도 그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기기를 닦는 대로 불 위에 던졌지만 불길은 잡히질 않았다. 곧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불을 끌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가슴이 불에 탔 것보다 더 아팠다. 지금이라도 나가면 자신은 살 수 있었다. 그래도 안 된다. “혼자 살 수는 없다! 부처님, 제발!”

바로 그 때였다. 나갔던 직원 중 한 명이 갑자기 튀어 들어왔다. “사장님, 아서 나오세요! 위험

직원들을 생각해 불붙은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그를 살렸다는 점이다. 문으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면 끔찍없이 크게 다치고 말았을 것이다.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마지막으로 절망적인 순간에 나갔던 직원이 들어와 소화기를 작동하게 된 점이다. 그 직원은 “전 사장님이 안 나오시고 혼자 불 끄려고 하시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시 들어간 거예요”라고 하였다. 그가 소화기를 쥘지 몰랐다면 어찌 되었을까 싶다. 그런데 그 소화기는 작동이 안 되어 포기했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소화기가 그의 발에 걸렸고 작동되었던 말인가. “혹시 부처님이 소화기를 다시 작동시켜주신 건 아닐까요?”하고 물으니 스님은 “네, 아마 거사님 마음을 보고 자성 부처님이 나무신 거겠죠”하며 벽에 걸려있는 법어를 가리킨다.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마침내 온 우주와 함께 하는 한마음인 것이다”라는 말씀이었다.

스님은 “거사님이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목숨을 거는데 자기 속 자성 부처님이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덕분에 안에 있던 불을 살리셨네요. 참 장하십니다”라고 미소 짓는다. 김씨는 가슴이 찡하며 눈물이 나왔다. 평소 마음공부를 하고 자성 부처님을 찾는 습을 들이지 않았던면 그 위급한 순간에도 버틸 수 있었겠는가. 지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몰랐다.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깊이 감사 또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귀한글 한문 겸용 불교상용의식집**

겸용의식집 5권이면 **염불 [한글염불·한문염불]**에서 경전공부까지 다른책이 필요없게 만들었습니다.

**내용 소개**

- ①한문염불(기초염불)과 한글염불(경전내용으로 조직)을 집전자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②경전의 내용으로(한글염불+한문염불)과 겸하여 조직하므로 독송 또는 읽음으로써 염불과 경전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 ③겸용의식집은 염불의 순서대로 조직하여 누구든지 쉽게 집전할 수 있게 하고 염불을 위주로 간편하게 편찬하여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 ④겸용의식집은 염불 중 '운문'을 없애고 집전자의 작은 예로까지 배려하여 염불이 약한 집전자도 부담없게 만들었습니다.
- ⑤염불방법 한가지 소개한다면 ㉑삼칭하는 청사문(2칭은 한문, 1칭은 우리말) 염불한다면 염불과 경전공부를 한번에 하게 되므로 별도의 노력없이도 우리말 염불을 쉽게 할 수 있게 될것을 확신합니다.

**구성**

- 제1권 : 예경, 각칭편 15,000원
- 제2권 : 천도, 시식편 15,000원
- 제3권 : 수계, 방생편 12,000원
- 제4권 : 장의편 12,000원
- 제5권 : 점안편 13,000원

※불서총판 운주사 및 전국 불교서점에서 각권 별도 판매합니다.

**문의 및 주문전화**

전화 054)974-1345 핸드폰 011-277-8024  
 불서총판 운주사 02)3672-7181 / 법우명 02)999-8315  
 (농협 211012-52-203756 박명덕)

**입종안내 대한선불 조계종**

총무원장 **영곡 효주**  
 종회의장 **법달 원정**  
 교육원장 **효타 원공**  
 사정원장 **무착 효산**  
 호법국장 **무타 대한**

**각 지역구 총무원장 임종을 환영합니다**

대한선불 조계종은 선을 생활화하는 종단으로서 불기 252년 5월 17일 창종 하였습니다. 대중적 불교를 지향하며 이 땅에 불교도 건설을 함께하실 스님들을 기다립니다.

■ 교육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324-4번지 효타암  
 전화 051)524-9406 / 010-7121-9406

■ 총무원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753-1번지 무진암  
 전화 054)744-0181 / 010-3178-1223

**천하대도 육경신도통으로 생로병사를 다스리고 자신도통으로 운명을 다스리는 최단기 수련법으로 지도자 스승되는 경신 대법회**

생명의 근본은 태식에 있고, 운명과 수명은 내마음자리에 있으며 생로병사 해탈법은 경신 도통에 있느니라.

● 경신도통으로 자신의 번뇌를 벗고 새로운 천도도통을 창조하여 막힌 운명을 찾아 도통하여 미래를 창조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다스리는 수련법으로 초능력자 일류 스승으로 도통군자 장수 비법으로 건강의 주인공 되시고 신신으로 만사형통하는 최첨단 기도.

진인도통군자 제위 귀하를 신종통 대법회에 초대합니다. 삼라만상 생명의 근본은 마음자리에 있고, 심의 근본은 자시와 오시에 생명의 정안을 하는 날이 경신인인 것이고, 경신일 날 천안통과 마음의 정안을 안하면 성불이나 득도가 되지 않고 한생을 고생만 하는 것이다. 경신도통법은 지구탄생과 더불어 사람에게만 하늘에서 내려진 도법으로 만세에도 천세에도 전하지 않았던 하늘과 땅에 감춰진 것을 금년 무자년부터 천용진인태일대사는 만천하에 전하는 바 이오니 경신도법에 전하는 것은 후천대도는 인간은 득도에 따라 천도는 드러나지 않게 지도는 율치이나 말하지 않게 인도는 그 사람 그 자리와 기국이나 인품이 아닌 자에게는 전하지 말지니라. 특히 육신이나 빨리 배우고 사용하여 이득이나 취하고 영리를 취하는 자에게는 삼가할 지어다.

● 경신도통이란?? 자신의 주인공을 찾는 수행인 것이고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법이며 곳을 받아도 안되고 치료해도 안되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을 제도 해탈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제하는 수행법인 것이고 도통군자는 경신도통을 하여야만이 무불도통으로 초능력자가 되어 일류 스승으로 되는 것이다.

◆신장 귀속들을 부러 말문과 글문과 도통군자들과 영통능력이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 대우경과 육주경 주문으로 신장 귀속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다룰 수 있는 특별비법인 것이다.

육경신 기도 중 이번 신종통 법회에는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불편하고 심신으로 고생하며 수족이나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즉시 해원 상생 도통하는 건강, 특별 기도 성취하는 신종통 기도인 것이다. 본 도량에서는 여유가 없어서 조상천도 못해드린 분들에게 무자년 백중49계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무량대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종통 수행은 즉시 도통성취하여 영통능력과 말문을 열어 해명과 성품이 돌로 갈라져 해명은 성품 즉 마음자리를 볼 수 없이 높고 병들어 계속신나나 관리 못하는 모든수행자들에게 특별 신종통 경신수행으로 신신이나 도인이되어 만천하를 제도하며 천하제일의 견성도통 심령도통 광명도통, 말문도통, 위술도통으로 하늘의 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만법을 열어 만중생을 제도하는 경신도통군자 되소서.

◆천하제일의 최장수 황무제도 삼천궁녀를 거느리는 건강장수 비법과 여자로서도 천하를 다스렸던 중국의 촉촉무후가 수행한 기법인 천하대도 기전 법인 배꼽과 두뇌로 숨을 쉬어 정신,심신,육신을 일체의 병을 다스리는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을 자기 스스로 다스리는 육경신 수행인문으로 만사형통하는 도통군자 되소서.

◆제2도장 태양의 집 -도인과 진인을 창출하는 천하 도통 명망 수행자 계몽명당, 봉황산, 계두봉, 서울동유, 비산비야, 비승비승 수행처 태양의 집 정신,심신,육신의 수행도량 이곳의 지장수를 마시어 고혈압, 당뇨, 중풍 및 살이 빠지고 오장육부가 편해지는 곳 태양의 집 수련원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 2리259번지 ☎ 041)867-7763 / 016-239-3110

**세계불교달마중 육경신 도통회 제2도장 태양의집**

- 입제 : 양력 2008년 7월 18일(음, 6월 16일 금요일)(해시)
- 해제 : 양력 2008년 7월 19일(음, 6월 17일 토요일)(해시) 02-821-6622 , 821-7767, 016-239-3110
- 농협 029-01-167866 광대일(한영) (선착순 접수) 간편한 웃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3번출구 → 버스 461번, 153번으로 환승하시고 두번째 모자원고개 하차. 동작구 약사회 골목 입구 관음정사

**웅조달마 경신도통회 세계불교달마중 충본산 태일합장**

**社說**

**종교편향, '주의' 만으로 안 된다**

공공기관의 종교편향 사례가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국무총리 특별지시도 하달했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광역진 중 무실장이 7월 4일 불교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광 실장에 따르면 정부는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교계가 제기하고 있는 각종 종교편향 사례에 대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 인식하고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에게 종교관련 공식 비공식 업무 추진 과정에서 특정종교 편향이라는 오해를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종교편향 사례들은 '주의 환기' 차원에서 묻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7월 3일 20여 개계 단체가 결성한 '이명박 정부 종교편향종식 불교연석회의(연석회의)'는 ▲이명박 정부 불교계 공개 참회 및 대국민 사과 ▲종교편향 행위를 자행한 공직자 참회와 사퇴 ▲공무원의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법 개정 및 주의 훈령 시행 보장 등을 요구했다. 연석회의는 공개적인 참회와 관련자의 사퇴,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종교편향 관련 사안을 국무회의에서 거론하고 지침서를 하달하는 차원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 착각하지 않길 바란다. 교사와 교장이, 국도해양부가, 경찰청장이 종교편향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환기' 하고 연석회의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템플스테이 전문 연구기관 필요**

템플스테이가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6월 27일 열린 서울관광대상에서 조계종 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가 최우수 서울여행상품상을 받았다. 또 경상북도는 템플스테이를 경북을 대표하는 명품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반가운 일이다. 현대인들에게 템플스테이는 각별하다. 일상이 주는 힘겨움을 고즈넉한 산사에서 털어내며 자신의 내면을 관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발현시켜 주는 것이 템플스테이의 참맛이다. 그래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특별한 체제로 또는 의미 있는 체제로 각인되는 것이다.

템플스테이는 사찰이 갖는 정적(靜的)인 가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삶에 풀어놓아준다. 고요하고 느림 속에서 역동적인 삶의 에너지를 길어 올리는 프로그램은 템플스테이가 아니라는 생각도 못할 일이다.

그러나 템플스테이가 인기를 구가하고 '명품화'를 추구하는 것이 그저 좋기만 한 것일까? 무엇보다 템플스테이 고유의 가치가 약해지고 관광상품으로서의 이미지만 강조될까 염려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템플스테이의 경우 관광의 한 부분으로만 치부될 경우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불교에 대한 오해를 안고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템플스테이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고무적이므로 틀림없다. 그런 만큼 각 사찰이 시행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들의 질적 성장과 철저한 관리 등이 필요하다. 이는 템플스테이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